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6. 27 ~ 2021. 7. 10 제250호



▲ 잠비아 주일학교 아이들. 제공: WMM

##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들이 구름다리를 건너 간다. 두 팔로 매달리고, 다리 벌려 기어가고, 쪼그리고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초록, 빨강, 파랑, 줄무늬, 꽃무늬, 얼룩무늬까지!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만큼이나 표정도 움직임도 다채롭고 역동적이다. 이렇게 생기고 천진한 아이들의 생명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어머니의 태는 알지만, 영혼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은 모른다. 다윗은 시편에서 모태에서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 아무것도 없는 어둠 한가운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이 작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 이 생명들을 낳태하는

일 없이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15~16) [GPNWS]

##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꾼 차별금지법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등법’이 시민단체와 교계, 교수와 의사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권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의원 외에 22명의 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는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안이 그 적용 범위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정안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복음법률가회는 “이 의원의 평등법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이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

하다.”면서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하고, 모호한 법조문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의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면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을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형사처벌 조항은 이 법에서 배제됐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법이 통과된 이후 처벌조항을 추가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다. [GPNWS]



### 마음의 눈을 밝히사 (34)

## 죄 보따리만 따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이해할 때 우리는 흔히 ‘나에게 죄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내가 있고, ‘죄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죄’를 고백하고 죄 보따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신

양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에, 봉사에, 밤낮으로 이리저리 뛰는데도 영혼이 목마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과 정죄가 내 안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의 노력과 최선의 벽에 부딪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죄와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의 생명 자체에 들어와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닌 ‘죄 곧 나, 나 곧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냥 있으면서 죄를 떼어내는 작

업을 할 수 없고, 죄인인 내가 죽는 길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쩡히 눈 뜨고 살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원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상 죽은 자요,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진리에 반응하여 살 능력이 전혀 없는 ‘죄 장아찌’입니다. 장에 무를 박아 놓으면 무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잘게 썰어도 장이 무에 배어 장맛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장이 곧 무요, 무가 곧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존재가 죄의 장아찌가



일러스트=김경선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죄 짐 보따리만 떼서 십자가 아래 놓을 수 없고 죄의 몸인 나, 즉 옛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인생인 죄인을 만나주실 때 주님은 어떤 부분을 고쳐주거나 채

워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새 피조물로 만드는 새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PN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정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 “여학생 화장실을 남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폭력”... 美 여학생 비판



▲ 화장실 성중립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줄린 그로버(14). 출처: Fox News 캡처

미국의 한 10대 소녀가 학교가 시행하는 여성화장실·라커룸과 같은 사적 공간에 남성을 허용하는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용감하게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올해 14세인 줄린 그로버(Jolene Grover)는 “여자는 여자다.”라고 적힌 녹색 티셔츠를 입고 학교 이사진들에게 “모든 이들이 남자아이가 무엇인지 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책은 위험하고, 성차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뉴욕 포스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이 여학생 옆 교실에서 에로티카를 읽고, 여학생 라커룸에 접근하고 싶어하고, 자신들을 ‘그녀’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소녀들은 무시한 채, 포괄성의 이름으로 이러한 정책을 편다. 당신의 정책은 여자아이들의 요구보다 남자아이들의 요구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면서 “지도 상담사에게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을 때 무시당했다.”고 했다. 그로버는 “나는 더 이상 이 공립학교의 학생이 아니지만, 여전히 학교에 있는 친구들, 특히 가을에 6학년이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러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그로버는 과거 이 학교 학생이었지만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그로버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한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역시 목소리를 높인다. 어른들을 용감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어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친구들과 또 자신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남자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의 라커룸과 욕실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속삭여선 안 된다. 이 학교에 등록된 내 친구들 중 일부도 이 정책을 우려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그로버의 이 같은 주장은 이 학교 전 직원인 테너 크로스 코치가 지난달 포럼에서 “생물학적 소년은 소녀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지 않겠다. 이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크로스 코치는 “그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학대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으로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버지니아주 순회법원에서 승소했다. [GPNEWS]

## 헝가리, 미성년자의 성초월주의(LGBTQ) 콘텐츠 시청 금지 법안 통과

헝가리 의회가 미성년자들이 성초월주의(LGBTQ) 관련 내용이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헝가리 루테이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헝가리 의회는 찬성 157대 반대 1로 성초월주의 관련 콘텐츠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는 소아성애방지법 개정안을 15일 통과시켰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이 시청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 영화, 광고 등 콘텐츠에 성초월주의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 방송국은 성초월주의 관련 영상의 시청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뒤야 하며, 학교 성교육 수업에도 성초월주의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 이 법안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여당 피데스당이 “소아성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발의했다.

가톨릭 신자가 절반인 헝가리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집권 이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 12월,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헌법에는 가족의 정의를 ‘모친은 여성, 부친은 남성’이라고 명시했으며, 출생 당시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와 헝가리의 기독교 문화에 부합하는 양육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성전환자의 출생 증명서상의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헝가리 정부는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 2019년 9월에는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구 1000만 명의 헝가리 인구가 연간 4만 명씩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부딪히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기독교는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 헝가리는 중동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재건을 돕기 위해 최소 지난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헝가리는 또 2017년 이후 최소 4000만 달러로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도왔다. 한 나라의 이 같은 행보가 세계 각국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GPNEWS]



▲ 헝가리 국회의사당. 출처: unsplash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인도, 코로나로 부모 잃은 어린이 1700여 명

인도에서 코로나19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가 최소 1742명, 부모 중 한 명을 잃은 어린이도 7464명이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직접 묻기도 하고, 영유아들은 숨진 부모 곁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아동보호단체들은 아이들이 생계 위협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착취 등 이중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의 영혼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 도움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천 명 고아들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시고, 힌두교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길 기도합니다.

#### 美 남침례교, 미전도종족 선교 위해 1차 500명 파송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위원회(IMB)가 향후 5년 안에 미전도종족과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2025 목표’를 세우고, 기존 선교사 외에 1차로 선교사 500명을 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MB는 전 세계 75개 도시를 선교지에 추가하고, 남침례교 산하 교회의 75%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지원에 참여케 하며, 매년 6%씩 기부 증가를 목표로한다고 밝혔다.

선교완성을 목표로 달려가는 미 남침례교 소식에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 땅에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대가와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 미얀마 군부, 피란민 쌀·의약품 불태워... 반인도적 범죄

쿠틀라 미얀마군이 피란민들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까지 불태우는 등 반인도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3000여 명의 피란민들은 약간의 쌀을 나눠 먹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산주와 카야주에서는 인근 삼림 지역에 피신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과 약품 수송까지 막고 있어 생후 6일 영아를 포함, 감기로 사망한 피난민이 50명이나 된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고통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때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길 구합니다. 폭풍과 환난, 폭양 가운데서도 압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완전한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6월 28일 ~ 7월 10일

- 6월 28일 ~ 7월 3일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6.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6.28~7.3(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6.28~7.2(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6.29~7.2(11~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6.29, 7.1~3(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그 외 5교회 진행중.

- 7월 5일 ~ 7월 10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7.5(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7.5(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7.5~9(0~24시)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정\*\*)010-6280-4419, 7.5~9(10~20시) ▶전북 전주 / 주를따르는교회(김\*\*)010-4743-9397, 7.5~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그 외 7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가난과 선교... 정복할 수 없는 중동의 그리스도인”

### 한국선교KMQ 2021 여름호, ‘중동 정교회와 파키스탄 성도들의 삶’ 소개

선교사의 영원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선교전문지 한국선교KMQ 2021년 여름호는 ‘선교와 가난’을 기획특집의 주제로 복음을 위해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가난과 복음, 빈민 선교 등을 소개했다.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친히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된 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등장했다.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던 알렉산드리아의 안토니우스(AD 251~356)나 거지 순례단을 만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1181~1226) 등이 대표적인 거룩한 가난뱅이 사역자들이다.

정마태 선교사(인터서브)는 ‘정복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중동정교회와 파키스탄 성도들이 어떻게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는지 소개했다. 중동 정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중동의 사회적, 경제적, 신학적, 정치적 대소동과 도전 가운데 지역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난한 자의 존재 신학이자 가난한 이를 섬기는 실천 신학으로 ‘가난 신학’을 발전시켰다.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순교한 폴리갑(69~155)은 생전에 스스로 모든 불의, 탐욕, 돈, 사람을 삼가고, 다른 이들에게 돈을 사랑치 말라고 말했다. 최초로 수도원을 세운 이집트 지도자인 성 안토니(251~356)는 “이 세상 소유물의 본질을 미워하고,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버리고 마음의 손을 하늘에 계시는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뺏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은 요한 크리소스톰(349~407)은 부자와 거지나 사료의 비유를 통해 가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정의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가 부자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가 가난한 자가 아니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가 가난한 자다. 우리는 가난과 부의 차이를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632년 죽은 후, 2대 칼리프 우마르 때 ‘우마르

협정’을 통해 ‘딤미 제도’가 등장한 이후, 비무슬림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학대가 시작됐다. 보호된 백성들(Dhimmi Protected people)이라는 의미의 ‘딤미’는 무슬림의 보호를 받으며 보호세인 ‘저지야 인두세’를 납부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 제도는 서구에서 12세기, 동양에서 13세기까지 존속되다가 서구 열강이 무슬림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 사라졌다. 특히 1856년 오토만 제국이 유럽에서 멸망하면서 ‘딤미’ 제도는 법적으로 무효화됐다. 그러나 근본주의 무슬림, 즉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파키스탄의 급진적 탈레반 등에서 다시 ‘딤미’ 제도를 부활시켜,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시당하는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딤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무슬림들은 현실적으로 ‘딤미’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딤미’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있다.

오늘날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1873년 6월 힌두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천민인 주흐라(Chuhra) 출신의 ‘디프’라는 사람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가 편자브 지역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 지역사람들의 집단 개종이 일어났다. 그 이후 이들 주흐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로부터 천한 종족으로 여겨졌다. 또한 파키스탄 사회에서 ‘딤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깊이 깔려 있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심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2014년 라호르 소재 포먼 기독교 대학교 일부 졸업생들이 리서치한 결과에 따르면 라호르 내 그리스도인들의 71%가 더러운 노동일을 하거나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라호르 근교 꺼쭈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현대판 이집트 종살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벽돌 굽는 일과 벽돌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데, 벽돌 공장 주인은 무슬림들이다. 이들의 노임은 매우 적고, 자자손손 무슬림 주인에게 빚지고 살고 있어 가난이 다음세대에 대물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1400년간 무슬림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으며, 핍박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중동권 교회 초기 기독교

의 성자들과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었지만, 오늘 파키스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강요된 가난한 자의 삶이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강요된 가난의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다.

하지만 정마태 선교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가난하게 된 자들의 가난 신학과 삶을 통해, 또 파키스탄에서 강요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 출처: 오픈도어선교회

기도 | 가난한 승리자들, 역사적 증인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교회 공동체를 공활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

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특히 중동의 무슬림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GPNEWS]

## G&P 신간 | ‘그들은 왜 이슬람을 떠나는가’

###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나빌 지음 | CLC | 756p | 값 35,000원 | 2021

“지금, 이슬람 역사 14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열성적이고 집단적이며, 배교자를 사형으로 다스릴 정도로 극단적인 이슬람에서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무슬림이 이탈하는 현상의 실체와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가 지난 3년 동안 탈(脫)이슬람을 결행한 전(前) 무슬림 50여 명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책과 영상을 보며 그 증언을 듣고 기록했다. ‘그들은 왜 이슬람을 떠나는가(Why they left Islam)’ 이 책은 이러한 전 무슬림의 증언과 이슬람 경전 및 사료에 근거해 이슬람과 무슬림의 진실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는 622년 무함마드가 이슬람 국가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아랍 국가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탈이슬람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중동지역에 거주하며 24년간 이슬람을 연구해온 저자가 전 무슬림의 인터뷰 내용과 아랍어 자료를 직접 한글로 번역·정리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기존 이슬람 전문 서적과 차원이 다르다. 기존 이슬람 연구서가 대부분 이슬람을 지지하거나 비평한 서적을 참고했다면, 이 책은 지난 7세기 이후 아랍어로 기록된 수많은 무슬림의 생생한 원문자료들을 아랍어 전문가가 한글로 바로 번역해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 책에 이슬람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초기 발생의 역사부터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까지 이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한 주의와 경계의 메시지뿐 아니라 무슬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 본질적 이데올로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때문에 이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친구가 되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는 2021년 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 그리고 불법체류

자 무슬림을 합친 숫자라고 한다. 이에 저자는 한국에 난민이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매를 걷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슬림은 대부분 우리들과 같이 인간미가 넘치고 다정하고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은 대부분, 혹은 거의 모두가 온 건주의 무슬림과 세속주의 무슬림이다.” 저자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섬겨서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슬람의 극단주의를 추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이슬람 이데올로기의 해악에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저자는 이슬람 종교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목적도 결국 무슬림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라며 이슬람은 비평과 경계의 대상이지만 무슬림은 이해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이슬람 선교 사역자들은 이슬람에 대한 낙관주의는 물론 무슬림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유튜브 채널 ‘이슬람의 상자’ ‘이슬람의 창’ ‘이슬람의 비밀’과 페이스북 페이지 ‘이슬람의 창’(fb.me/nabillee97)을 운영하고 있으며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와 이슬람의 이집트 침략’(CLC, 2018) 등 아랍 관련 서적을 다수 출간했다. [G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57)

# 맹장 필요 없다? ‘NO!’ 면역체계의 일부... 제거하면 질병 가능성 높아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교과서는 맹장이 흔적 기관이며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맹장은 필요하다. 맹장은 우리의 면역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수술로 제거되기 전에 맹장이 인간의 몸에서 하는 기능이 뭐가요?”라는 질문에 “맹장은 알려진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식단이 섬유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맹장이 점차적으로 인간에게서 사라질 거라고 믿어집니다.”라는 답이 달렸다. 하지만 우리의 식단은 여전히 섬유소를 포함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맹장은 면역체계의 일부다. 갑상

선이 T세포(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일종)를 활성화시키듯이 맹장이 B세포(백혈구에 속하는 림프구의 일종)를 활성화시킨다. 맹장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 다리와 두 팔과 두 눈과 두 귀가 없어도 역시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맹장을 제거하면 여러 질병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교과서는 고래에게 흔적 골반이 있다고 한다. “많은 유기체가 진화의 역사를 되짚어간다. 예를 들면 고래는 골반과 대퇴골을 쓸모없는 흔적 기관으로 가지고 있다.” 또 국립과학교육센터는 “보씨라는 소는 분수공이라는 고래로 진화했다.”고 가르친다. 소가 고래로 진화했다는 증거로 골반을 지목한다. 물론 거의 모든 종류의 고래들의 배에 있는 그 뼈들이 척추에 붙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작은 뼈들은 고래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근육들이

붙어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그 특정한 근육들과 뼈가 없이는 아기 고래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고래의 흔적 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래 해부학에 대해 무식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론을 퍼뜨리려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흔적 기관은 없으며, 있더라도 그것은 진화의 반대가 된다. ‘잃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교과서는 디스커버지 2004년 6월호에 실린 미골, 즉 인간의 꼬리뼈를 소개하며 “이것이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 여전히 사용하는 꼬리의 남은 흔적 전부이다. 인간에게 분명한 기능이 없는 꼬리뼈가 있다.”고 말한다. 어느 토론에서 노스앨라배마 무신론자협회 회장은 진화의 증거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꼬리뼈’를 주장했다. 그에게 “나는 생물학과 해부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꼬리뼈에 9개의 작은 근육들이 붙어있다는 것



▲ 고래의 특정한 근육들과 뼈가 없이는 아기 고래를 만들 수 없다. 출처: 위키미디어

을 알고 있다. 그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다. 당신은 그 근육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다.

‘비평적 사고’ 2005년 판에는 “등뼈의 끝에는 작은 몇 개의 뼈들이 융합된 미골이 있다. 인간의 미골이 흔적 구조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새로 진화하고 있는 구조의 시작일까?”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비평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에게 틀린 두 가지의 선택을 주는 것뿐이다. 미골은 대장을 받쳐주고 앉은 자세에서 등뼈 아래를 지지하도록 디자인되었을 수도 있다. 해부학 책에는 미골의 대여섯 가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

사람들은 “미골은 인간 척추의 끝에 달린 작은 뼈다. 이것은 현재는 아무 기능이 없으며 이것은 나무에 살던 조상의 긴 꼬리가 한 때 차지했던 뼈의 잔재로 여겨진다.”며 “사람에게 꼬리가 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꼬리가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이다. 두 개의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꼬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편하지 않을까? 필요 없어서 사라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화론을 위해서 사용됐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증명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과서에서 거짓말이 있는 페이지를 찢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GPNEWS]



## 선교 통신

###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 출처: unsplash

#### 사라진 예배 공간

K국 정부는 매일 ‘위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현직인들, 그리고 나 역시 ‘위기감’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은 채 덩그러니 일상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에스겔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겔 22:30)

현재 등록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밤을 새워가며 온라인 예배 영상을 작업해서 송출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저 또한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내려놓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한 목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소규모로 주일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최근에 카페 운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진행된 모임이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거주하는 집의 오래되고 썩어 잘 열리지 않았던 나무 창문을 플라스틱 창문으로 교체했습니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했지만, 매일 아침 잘 열리는 창문을 활짝 열면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문을 열면 약 30여 평되는 텃밭도 보입니다. 자주 텃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잡초를 뽑고 채소를 가꾸다 보면, 마음 한켠이 뿌듯해집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짐수리하고 텃밭 일구고 온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코로나 핑계 대고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한 자매가 기억났습니다.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갔다가 우연한 기회로 만난 자매였습니다. 자매는 한국어와 한국에 관심이 많아 계속 관계가 이어져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그녀의 남편과도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슬림이지만, 우리에게 대하여는 큰 거부감 없이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부를 만나고 나서, ‘그래 내가 텃밭에 농사하자고 온 것이 아니고 이거 하러왔지!’하며, 이 부부에게 복음의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 잃어버린 길... 다시 주님께로

제가 6살 때로 기억합니다. 시골을 떠나 직장을 다니던 누나를 따라 부산에 갔습니다. 낮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가 쨍고, 그만 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영영 울고 있던 저를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동사무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퇴근을 하고 돌아온 누나가 사방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눈물의 상봉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근에 멘토링을 받고 있는 노 교수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익숙해져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지도도 안보고 길을 찾고, 매일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를 펼치고 다시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매일 매 순간 나아갑니다. 그분에게서 생수를 공급받고 또한 매마른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GPNEWS]

K국 누르잔

## 복음의 능력

### 참된 안식과 기쁨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은 자아를 향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의 과도한 자기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정이며,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헛된 영광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영혼들은 하나님으로 불탄다. 그들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다. 그들의 믿음은 바위처럼 견고하다. 그들의 섬김은 열정으로 불탄다.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당대 세계 복음화 때문이었어요”

열방에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조성욱** 목사(복음가득한교회)



© 복음기도신문

복음가득한교회는 매년 달력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올 것을 기다리며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지는 초대 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달력에 담아냈다. 조성욱 목사는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달력 안에 담긴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먼저 목사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되는 게 없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군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사고로 죽었을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그때를 잊지 않도록 지금도 그 상처를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조 목사는 설명하기에 앞서 사고 당시에 남은 흔적 중 하나인 발등의 흉터를 보여줬다.

“당시 포를 쏘는 훈련은 가짜 탄에 화약만 넣어서 발사했습니다. 보통 후임들은 목표지점에 떨어진 탄피를 주워 와야 했어요. 그때 제 앞서 가던 제대를 며칠 앞둔 고참 선임이 과거에 떨어진 불발탄을 발견해 흙을 털던 중 그만 탄이 터져버렸어요. 그 고참 선임은 그날 사고로 사망하고, 저는 폭음에 너무 놀라고 파편을 맞아 기절을 했습니다. 파편이 발등의 뼈에 박혔는데, 지금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평소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다른 것이 닿으면 불편해서 이불을 덮지 못해요.”

## 폭탄 사고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 파편이 다른 곳에 튀지는 않았나요?

“헬기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슬픔과 놀람과 충격으로 만감이 교차하던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소지품을 빼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려는데 다시 한 번 놀라운 흔적을 보게 됐어요. 가슴 주머니에 있던 성경암송카드를 빼는데 거기에 파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바로 심장 위치였어요. 그 암송카드는 사고가 나기 5일 전 휴가를 갔다가 사왔던 거였어요. 그것도 기독교백화점이란 곳에 난생 처음 가서 사본 성구카드였어요.”

- 그 말씀카드가 목사님 생명을 살린 거군요.

“군대에서는 10분간 휴식을 하면 전부 담배를 피웁니다. 별로 신앙은 없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던 저는 그때 할 게 없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등병 때는 갑급하니까요. 성경책을 들고 훈련을 못하니까 기독교백화점에 가서 암송카드를 산 거예요. 100장 짜리 카드가 한 장 한 장 코팅이 되어 있으니 꽤 두텁잖아요. 그걸 가지고 10분간 휴식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암송하려고 넣고 다녔어요.



▲ 멕시코 성도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제공: 복음가득한교회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비닐인데 왜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생각하면서 말씀카드를 꺼냈는데,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내가 죽은 목숨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군요. 이후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평생 재수 없었던 놈인데 이걸 재수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살리신 것 같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이 아닌가. 남은 몰라도 나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뼈 중간에 박혀 있는 포탄 파편을 빼기가 어려워 9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깊이 저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살아 계시다고 해도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라며 원망스러워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을 찾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이러질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닦치는 대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복을 입고 군대 내에 있는 병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

는 중에 방언도 받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 주님을 만나셨군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왜 살리셨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찾기 위해 성경을 보는 중에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까? 저는 어릴 때부터 왕따를 많이 당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화하는 게 어려운 저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하니깐 고민이 됐어요. ‘전도가 힘들지만 내 성향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나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 저를 살려주신 이유, 세계 복음화 때문이었어요

-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된 거군요.

“제대 이후 복학해서 대학시절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2004년 12월 5일에 복음가득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개척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2012년에 말도 안되는 해외 사역에 도전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번 시도해 보자며 몇 명의 목사님들이 마음을 모아 이 시대의 강대국인 미

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도 분명히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나라와 시대를 살릴 주님의 제자가 있다는 믿음으로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모두의 마음속에 마이애미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일단 2주간의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갔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안 찾으시면 들어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갔어요.”

- 대단한 포부로 나가셨네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셨나요?

“처음에는 대학에도 가보고 부자들도 만나보려고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곳에 100만 명이 넘는 쿠바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쿠바 교회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쿠바 교회를 검색하다가 ‘에코 쿠바’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단체 대표인 테오박사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니퍼라는 간사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울더군요. 전날 담임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자. 전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나타났으니까요. 우리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친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제니퍼는 우리를 바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연결시켜 줬어요.”

- 쿠바 목사님을 만나셨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네요.

“까르도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을 통해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통해 가장 은혜 받은 분은 그 목사님이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우리 주변에 복음

을 듣기로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집회하는 일주일 동안 교회를 통해 약 2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후에 쿠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벨리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페루 등으로 100개국의 문이 열렸어요.”

##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 그 내용들이 달력에 있다는 거죠. 이제 달력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너무 원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걸음을 통해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발자취를 매년 달력에 담았습니다. 매년 1월 달력에는 복음과 당대 세계 복음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력에는 작년에 인도에서 진행한 아시아 두란노 대회 사진입니다.”

- 교회가 이런 대회를 주관하고 있군요.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섬기면서 다른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면서 국가 전도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나라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을 돕자는 것이죠. 이것은 한 나라에서 제자를 찾는 것인데, 그 제자 한 명이 그 나라를 복음화해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나라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자비량으로 1~2주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새로 발견된 제자들을 본국에 있는 팀에게 연결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만 구축해주고 나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는 한번만 도와주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텐데, 그랬군요. 다른 모임은 또 뭐가 있나요?

“전 세계 대륙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꿈브레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꿈브레는 스페인어인데, 영어로는 서밋(summit), 최고, 정 (7면에 계속)



▲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진행했던 국가 전도운동 현장을 담은 달력. 제공: 복음가득한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더 큰 죄, 더 큰 은혜 (1)

# 존재 자체가 죄인인 위기의 인간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함이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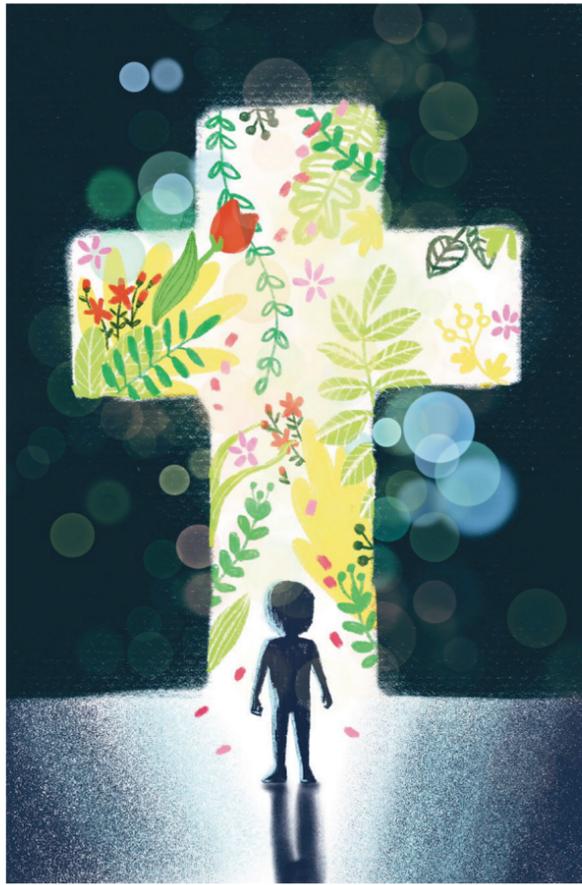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돼 버렸다. 빛이 없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질서, 혼돈, 무법이 판을 치는 어둠의 세계에 강하고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핑계할 여지없이 추악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인류의 비참한 실상이 그렇게 드러났다. 개인의 심령과 개인이 모인 사회 집단의 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떠한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드러났다.

어둠 속에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취셨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되신 주님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 예수님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며, 그분의 삶은 흠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삶은 진리요, 길이요, 빛이셨다.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들의 중심은 선과는 전혀 상관없었다. 존재적 죄인이며, 죄 친화적인 존재였다.

##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깨닫지 못한다

존재 자체가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위기의 인간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진리 자체에 대해 반역하는 비참하고 소망 없는 존재



일러스트=이예현

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담의 범죄였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열어 놓으실 때, 주님은 마음 안에 있는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창조세계 안에 그대로 드러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아무 것도 누릴 수 없게 됐다. 그들이 선택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됐다. 역사에 존재한 어떤 인간도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모두 소망 없이 심판 아래 놓일

죄이지만 죄 중에 더욱 큰 죄가 있다. 죄인지 알면서도 행한 죄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한 죄는 같은 죄지만, 긍휼의 여지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알지 못하고 행한 죄’라는 표현이 나온다. 바울은 말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죄는 동일하게 무거운 죄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있다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한다. 물론 그 죄로도 지옥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2018년 5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GPM  
최신간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삼성연합의원

###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마태복음 9장 35절)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비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 “함께 해요”

**대상자**

- 목회직: 목사, 전도사로 임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삼성초대교회와 선교동역하실 분
- 전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간병사 그 외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분

삼성연합의원 · 삼성초대교회 | 문의 ☎ 010-8528-3217

버거데이

**BURGERDAY**

HEART MADE

만남과 나눔을 요리하는 **버거데이**  
건강한 샌드위치 주먹밥 과일 단체도시락

☎ 010-2207-2787 | 대구시 수성구 천문로 117

강원냉동 엔지니어링 ❄️

**취급품목** 각종제빙기, 중대형냉장고, 쇼케이스, 슬러시기계  
출장 A/S 및 신품 중고품 판매

**대표이사** 이병철 장로

☎ 033-744-2933 / 010-3856-4802  
✉ gkcm119@naver.com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자를 돕는다

나는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육하는 기독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 과정을 다 배우고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글자를 보고 한 번에 말해야 하는 시험이었다. 한 아이가 쪽 잘 읽어 나가다 한 번 실수를 했다. 아이는 너무 속상해하며 얼굴을 팔로 감싸면서 책상에 엎드렸다. 괜찮다고 위로해 주고 나머지를 더 읽어 내려갔는데, 몇 개 더 틀렸다. 아이는 틀릴 때마다 너무 괴로워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도 아이는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책상 아래 들어가 쭈그리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왜 울고 있어요? 뭐가 속상했어요?”라고 묻자, 잘하다가 항상 마지막에 못하는 게 속상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아이를 보며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목회자 가정의 첫째로 태어났다. 난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패



일러스트=고은인

를 두려워했다. 기준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매번 실패하고 괴로워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이 넘어져 봐야 넘어진 자들을 도울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완벽하고 실수를 안 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못 배우고 교만해진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추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다 맞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다. 아이는 “이제 친구들과 놀까요?”라는 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잘 놀았다. 바로 믿음으로 일어난 아이가 놀랍고 기특했다. 이 일이 있기 전 나 역시 나의 죄인 된 모습으로 인해 낙심해 있었다. 교육 선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온 학교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다. ‘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는데 왜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못할까?’ 이 일을 통해 단순히 인정하게 되었다. 평생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으며 살았어도,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는 것은 ‘제 멋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과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내 원함 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로 결단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GPNEWS]

또언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Q**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투명하지 않은 것을 보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옮긴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이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할지, 교회를 그만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A** 이 땅에 세워진 유형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내가 받는 상처나 고통이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과 명령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과연 누가 주인인지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해도 교회를 옮겨야 하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해도 교회를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주님 밖에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PNEWS]



<5면에 이어> Interview

## “자식을 잃어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이 스페인어권에서부터 열리다 보니 꿈브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꿈브레는 각 나라의 대표 제자들만 모이는 모임이에요. 2019년 같은 경우는 꿈브레에 85개국에서 16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지금까지 3번 정도 열렸어요.”

- 그러면 두란노 대회는 어떤 모임이죠?

“대륙별 모임이에요. 모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여서 각 나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각 나라 안에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돕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왕에 모였으니 전도를 해요. 만약에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모인다고 하면 과테말라 전역에서 전도해요. 이렇게 전도해 보면 각각 나라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서로 배우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해외 제자들하고 과테말라 제자들을 팀으로 묶는데, 이 모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요. 100~200명의 대륙의 제자들이 현지인들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나중에 대회로 모여요. 그때는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개인적으로 교체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활하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두란노 대회는 중남미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진행됩니다.”

- 놀랍네요. 각 대륙을 넘어 세계에서 모여서 전도를 하다니요. 다른 일들도 있나요?

“아이들도 함께 세계 복음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작된 게 피니셔(Finisher) 사역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학교입니다. 해외 사역들이 많다 보니, 제자들이 올 때 자녀도 함께 옵니다.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과 현지 아이들을 함께 놓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경학교 비슷하게 복음을 풀어내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학부모들이 많이 힘들어 했지만, 반응이 좋아서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피니셔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륙별 모임, 다음세대까지**

- 자연스럽게 다음세대 사역까지 이어졌군요. 지금은 온라인 모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온라인 사역을 해야겠다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다. 한국에 와 있는 나이지리아의 토마스 목사님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 박사학위 공부 중인 목사님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때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뭘까 생각하다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영어권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후보에 우리 교회가 관여하는 온라인 모임 30여 개가 시간대별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자생적으로 대륙별로 하는 온라인 모임이 많습니다. 중남미는 자생적으로 모임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고, 아프리카도 우리가 몇 나라만 돕고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하거나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제자들이 메시지를 섬겨주면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 여러 나라 모임에 메시지를 섬기신다면, 통역도 필요하겠군요.

“스리랑카의 경우 보통 언어를 하면 영어를 다 쓸 수 없으니까 3중, 4중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메시지는 15분하면 되지만 통역



▲ 각 나라 제자들이 모인 꿈브레 대회 현장. 제공: 복음가득한교회

때문에 한 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을 보고 섬기게 됩니다. 그 한 명을 통해 이 민족의 문이 열리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도 사역이 활발합니다.”

- 오프라인 사역 이야기도 해주세요.

“지금도 사역자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온라인 사역이 많이 진행됐지만, 인터넷 사정이 약해서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 왔다가 복음을 만난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자기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런 중에 막내를 잃었어요. 1년 후에 첫째를 잃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 1년 동안 라이베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올 1월에 첫째를 잃었는데, 며칠 만에 순회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사모님이 심장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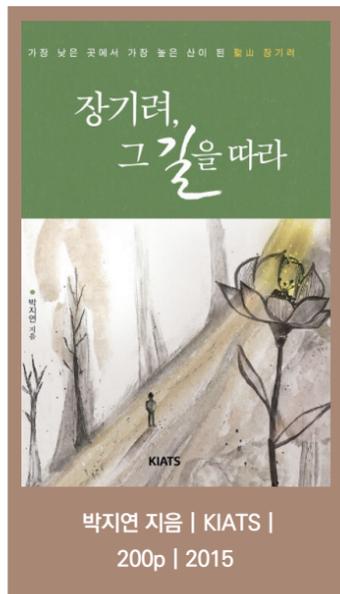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박지연 <장기려, 그 길을 따라>

#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 장기려 선생



“여호와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다 하니”(삿 6:12,15)

장기려 선생의 삶을 따라가며 사사 기드온이 생각났다. 전교 1등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머뭇거리며 고민이 많은 소년, 타고 나기를 섬세하고 순한 심성이라 공대로 진학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 앞에 쉽사리 결정 내리지 못하는 소심함, 의사가 되고 싶어도 한없이 자신을 부족한 자로 여겨 선풍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작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라 불러 주시는 것 같았다.

### 심약하고 여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자

세상에서는 스스로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복어가 몸을 부풀리듯이 어떻게든 눈에 띄도록 드러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고 말하며 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정반대다. 스스로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낮다고 여겨 주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

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호의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소년 장기려는 심약하고 여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자 했다. 경성의대를 입학해 일본인들의 탐바구니에서 그는 빛이 난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타고난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특유의 성실함과 명민함으로 동기들 중에 앞서가도 결코 눈에 띄려고 하지 않는다. 의대에 입학해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답답할만치 겸손하다. ‘내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을까? 밥벌이라도 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하며 끝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의과외가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명성과 부

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쫓는다.

### 자신을 공산정권에 남겨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

원치 않았지만 해방 후 피비린내 나는 이념 전쟁 속 북한에 남겨진 장기려 선생은 공산주의 정권에 휘말리게 된다. 아직 전쟁 발발 이전이라 조금만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남쪽으로 내려왔어도 좋으련만 오직 이곳에 자신을 두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스스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이때에 자신을 공산주의 사회에 두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뿐이다.

결국 남쪽으로 피란을 내려오는 난리 통 속에 아내,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 그 이후 그는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마음속에만 깊이 묻고 그는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과 자신이 감당할 아픈 사람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

럼 살아간다. 스스로는 원치 않지만 여러 번 감투를 쓰는 자리에서 번번이 시기와 질투, 모략으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장기려 선생은 낙담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 주변에서 그렇게 가만히만 계시지 말라고 간청을 해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전쟁은 오직 주님께만 속했음을 고백한다.

### 전쟁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삶, 장기려 선생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한없이 작고 겸손하나 진리 앞에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말씀 그대로 따르는 삶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의사 장기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라 부른다. [GPNNEWS] 최형정 선교사

##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폭격 맞은 가자지구에 남은 12명 성도... 전도 이어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으로 가자지구 유일의 개신교 교회 건물이 작은 피해를 입었으나, 남아 있는 성도 12명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15일 전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주님께서 가자지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것이 아니면, ‘가자침례교회(Gaza Baptist Church)’가 계속 존속되어 온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폴리 대표에 따르면, 현재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있는 가자지구에는 1100명 미만의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곳에는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하나씩 있는데, 그 유일한 개신교 교회가 바로 ‘가자침례교회’다. 가자침례교회는 1954년,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젊은 시절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침례교로 개종한 한나 마사드가 1987년, 그 교회 최초의 가자지구 출신 목사가 됐다. 2000년대 초반, 그 교회는 약 2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여 6층짜리 건물에서 모였고, 지금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하

마스가 가자지구를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가혹한 종교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고, 마사드 목사도 교회 건물과 성도들에 대한 잇따른 폭력 공격으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 교회와 관련된 서점인 가자지구 유일의 기독교 서점도 화염 폭탄 공격을 받았다. 교회 지도자이자 서점 관리자로 섬겼던 라미 아야드는 공개처형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살해당했다.

이에 현숙 폴리 대표는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성도는 12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마사드 목사가 매주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성도들과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지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매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 호주와 유럽 및 미국과 중동 전역에 ‘흠어져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지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교회는 등대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학교



▲ 가자침례교회의 과부 지원 모임. 출처: 순교자의소리

에서는 그 지역 공동체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만들어낸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 그 성도들은 기독교 서적이 많이 소장된 마를 도서관을 열었다. 성도들은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가난한 가족에게 음식과 지원품을 나눠주고, 과부와 고아를 도왔다. 순교한 라미 아야드의 아내도 현재 홀로 된 여성들을 지원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핍박이 가혹해진 2007년부터, 전 세계 VOM 단체들이 이 교회와 그들의 다양한 사역을 지원해 왔다.

폴리 대표는 “가자지구 기독교 박해 역사는 로마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증

인을 남겨 두지 않으신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그 지역에 남아 생존할 수 있는 성도가 줄어들수록, 그분들을 돌보는 사역이 더 중요해진다. 가장 최근, 우리 순교자의소리는 폴린 아야드가 운영하는 과부 지원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최근의 정치 분쟁으로 손상된 교회 건물을 수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전도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VOM은 6월 말까지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사역’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가자침례교회와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역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GPNNEWS]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1. 6. 3 ~ 6. 16 (가나다 순)

개인  
고은영 권순호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유남 박성규 박신희 박영순 백미선 신은혜 은종숙 이정희 이평섭 정금자 정은혜 조재희 조흥국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영신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버거데이 새순교회 양덕원감리교회 하원교회 토론도한침례교회 험스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총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